

2023.4.9.(부활주일) 이사야 43:1-7 증인이 되라 김양재 목사님

-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런 모든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죽어지고 썩어지면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이렇게 숨이 쉬어지지 않는 환경이 있을 수 있죠. 그동안 1,184통의 주보 전도 편지를 곳곳에 보냈어요. 아빠에게, 엄마 아빠에게, 형에게, 뭐 할아버지에게, 오빠에게 등등 이제 그걸 보시고 오늘 오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너희는 나의 증인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해요. 12절에도 ‘**증인**’이라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증인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1. 첫째로, 하나님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1-2절)

1절 2절이에요.

-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1절 안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지명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이 한 절에 담아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2절에 물과 불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제 말씀해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말씀이 사운드로 들리지 않고, 보이스로 들리기 때문이죠. 모든 국경과 세대를 뛰어넘어 그리고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통하는 언어가 있는데요. 영어도 중국어도 아니고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은 말씀이 들리는 최고의 공영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말씀과 내 인생의 해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누구 보고 말합니까? ‘야곱아’ 그립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사기꾼에, 거짓말쟁이인데. 그런 그가 아내를 4명이나 두고, 자식은 낳았다고도 말하기 싫어요. 12이나 까놓았어요. 첫째는 서모 빌하와 동침하고, 둘째, 셋째는 살인자고, 넷째는 며느리와 동침하고, 딸은 강간을 당했어요. 콩가루 중에 콩가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고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하필이면 오늘 ‘야곱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수준 높은 복음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구속사적인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 특징은 쉽게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 중 제일 괜찮은 아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사람으로 요셉이 딱 어울리지만 하나님은 넷째 아들 -며느리와 음행한 유다-를 선택하세요. 근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직계조상은 잘난 요셉이 아니고, 이 수치스러운 유다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가 기복산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오늘 영접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4대째 모태신앙이고, 또 요셉같이 인간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 전에는 성경에 유다가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요셉 같은 사람이라 1 더하기 1은 2 여야 하고요. 내가 아무리 망하고 가난해도 늘 4대째 모태 신앙이고, 칭찬받기 위해 제가 누구보다 참고, 욕심을 버리고 등등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적용을 해서 교회에 잘 나가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순종 잘하니 학교도 잘 가고, 소위 결혼도 잘했지요. 그래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게~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오지 않으면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된다’의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용광로 같은

이 불같은 결혼생활로 들어가니까 딱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결혼생활에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복을 못 받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기복산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혼과 자살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착함으로, 내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내 만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이 땅끝까지 내려가니까 전적인 은혜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속사가 깨달아졌어요. 무시 받고 낮고 낮아지니까 이 큐티를- 말씀묵상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바로 이 유다가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된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신세계였어요. 성도의 목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따라 가는데 그 예수님의 직계조상인 유다를 깨달았다는 것은!!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한 아주 포인트였습니다. ★인간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곧 죄에 대해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분별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은 언젠가 저처럼 이렇게 쾅! 터지게 돼 있어요. 죄를 모르면 인간을 모르는데 결혼인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직장에서 사람인들 제대로 뽑겠습니까? 제대로 직장인들 가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저도 학교 가고, 결혼까지 해서 기쁘고 기뻤는 줄 알았더니 매사에 두려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거기 사실 진정한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두려워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신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가 백만장자만 만나도 그럴 텐데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보다 이 유다의 구속사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아주 분수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성품이 워낙 모범생이니까 매너리즘도....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 믿으려면 도리어 죄짓고 막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빨리 믿어. 이게 성품이 이기고 이기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를 깨닫고 나서 4대째 모태신앙인 제가 증인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한결같이 수십 년을 이렇게 외치고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 이거를 좀 떠나서 진짜 품격 높은 예수를 믿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Q. 나를 창조하시고 지어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까?

Q. 이 구속사의 유다를 얼마나 이해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미취학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치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들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지명해 부르시고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 영국의 왕족들은 옆에서 보기만 해도 와~ 귀티가 막 너무 난대요.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웃는 거 다 훈련을 아주 엄청나게 받는 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받아야 될 훈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귀티가 아니고 왕티가 날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2. 물과 불에 순종해야 합니다. (2절)

이 얘기는 ‘주님이 아시는 고난에 순종해야 합니다’와 같습니다. 2절이에요.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제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고난은 다 피해간다.~’ 뭐 그게 맞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정말 전쟁 후에 또 그동안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너무 빈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우리를 굉장히 힘을 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 10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성경도 자세히 봐야 돼요. 죄악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물과 불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전해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물과 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물과 불을 없애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앉으나서나. 그런데 이제 하도 물과 불에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정 그러면 바다보다는 강물~ 강물보다는 시냇물~ 시냇물보다는 접식물~ 그것도 이왕이면 생수~ 생수 중에서도 에비앙~” 이러면서 그리고 햇불보다는 촛불~ 이런 걸 구체적인 기도라고 기도하는 거 있죠.--;; 딱 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접식물에서 증인이 되고 싶어요? 홍해바다에서 증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오~ 그렇겠네’ 근데 우리가 100% 죄인이라 남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고난도 없이 접식물에서~ 에비앙 물에서~ 증인이 되겠다고 하면 쪘께께 은혜가 안 되지요~ 잉? 맞아부러~? 우리는 홍해바다 간증, 햇불 간증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너무나 보석을 박아 멋지

게 지은 예루살렘 성마저 불타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겪어간 사람들이 바로! 이 조그마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그 영적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애굽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우리의 고난이 감당 못할 만큼 큰 물과 불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 그 물과 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정하려는 것이 얼마나 교만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나의 환경이 내 몸에 딱 맞는 물과 불임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과 불을 지날 때 이렇게 침몰하지도, 타지도 않는 이 신비한 체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택자라면 딱 맞는 물과 불을 주셔요.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을 알면! 그래서 내가 고난을 정해서 당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왕이면 우리는 ‘자식 고난은 좀 없으면 좋겠어~ 일단 돈 한 번 줘보시라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증인이 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 주면 안 될 것을 만세 전부터 알아요. 절대로 돈 주면 멀리멀리 가는 거예요.

저도 죄를 모르니까 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에 물과 불에 넣어서 13년 갇혀 있게 하셔서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제가 이 물과 불에 갇혀있지 않았다면 전 100% 이혼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예쁜 외모로 자유 부인 되었을 거고, 아주 돈 버려~ 몸 버려~ 순식간에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니까. 딱 그랬을 거예요. 그러므로 갇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로 갇혀 있죠. 예전에는 남편 한 사람 순종하면 되지만 지금은 정말 눈만 뜨면 수많은 사람에게 제가 순종해야 해요. 대신 깨달아드려야 되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는 엄청난 갇힘이 자발적으로 계속되니까 그냥 주일에 교회만 오면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안 그랬던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 유다의 구속사를 깨닫고 난 다음서부터는 뒤로 침륜에 빠지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은 뭘 그렇게 맨날 회개를 하냐?” 그러시는데 저도 이렇게 때마다 정점이라는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 너무나 밑바닥 인생을 오래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과 감정을 너무 참 많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어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오고 가기 때문에 ...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할 것이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고,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갇힌 환경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요, 용서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밑동 잘린 나무처럼 짧기 때문인데.. 갈수록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날이 가까운데 사하심의 그 은총에 그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진짜 내가 이 짧은 인생길에 악하고 음란한 것밖에 없는데 갇혀 있으니까 자꾸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얼마 안 남은 인생에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사생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갇혀 있게 하셔서 깨어 있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구속사

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절절히 깨닫겠습니까? 총리 요셉이 그 용서를 절절히 깨닫겠습니까? 이게 구속사예요. 눈에 띠는 고난과 죄패가 있게 되면 참 용서를 깨닫기가 쉬워요. 그런데 시기마다 다른 각자의 물과 불에서 이제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이 들리는 건 내 죄가 보이는 거니까- 회개가 되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회개’가 이렇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터져나오는 거

■ 적용이에요.

Q.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물과 불을 지나고 있습니까? (자식 불, 돈의 불, 건강의 불, 배우자의 불 등등)

Q.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합니까? 내 몸에 딱 맞는 물과 불이라고 지금 용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수준이 너무 높죠? 주여. 팔복산은 항상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주시는 물과 불을 순종하고 걸어가시는 것이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세팅이고, 거기서 늘 사하심을. ‘이게 정말 갇혀 있는 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은 정말 이 땅에서 더 이상의 문제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증인 되기 위해서,

3. 나에게 속량물로 주신 애굽이 있습니다. (3-7절)

3~4절입니다.

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성령님의 의도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차례대로 읽어야 돼요. 물과 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거룩한 분이시래요. 구별됐대요. 그리고 구원자라고 하세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됐죠? 누구 때문에 구원됐어요? 우리들교회 실력 없어요? 누구 때문에 구원됐죠? 네, 모세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지당하신 답이고요. 사실은 애굽에서 학대해줘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공로자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이 된 애굽! 속량물로 준 애굽은 나를 힘들게 한 자이지만 내가 가장 고마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애굽 때문에 구원됐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네 몸값으로 내어주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무엇이라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을 몸값으로 줍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광야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죽어질

것이 다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 못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밖에 나오지를 못했는데.. 예를 들면 이 강한 남편, 시부모, 배우자 애굽이 나를 건져내기 위해 수고합니다. 돈이 많아도 강대국이고, 알코올 중독, 포악해도 다 강대국이고, 내가 넘사벽인 이 모든 사람들이 수고해요. 애굽이 아주 여기서 400년이나 수고했잖아요. 내가 질기고 악할수록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이 수고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애굽은 정말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렸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을 수장시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애굽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애굽이 수고해서 구원받았어요. 도박으로 집을 날린 사람을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나를 위해 수고했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죠. 그거 기도하면서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다 힘든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내 옆에 있는 힘든 사람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죄가 보이면 그 애굽을 속량물로 주신 것이 깨달아져요. 이제 그렇게 구속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교회는 탈북 청소년 학교를 20년째 돋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무서운 김정일 정권을 피해서, 또 지긋지긋한 가난과 굶주림을 피해서. 세상에 그 감시를 뚫고 부모를 버리고 살겠다고 남한에 왔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두려울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배고픔 때문에 왔지만은 여기 와서 이제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그죠.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고향에 있는 엄마, 아빠가 처형받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이제 그러니 교화소에 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리고 남한에서의 미래도 두렵죠. 웬만하면은 오지 않아요. 예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왔잖아요. 그 두려움과 여러분의 두려움이 비교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고파서 압록강을 넘었어요. 부모를 처형할 것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너무 너무 배가 고프면.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아이들을 누가 탈출하게 만들었습니까? 당시 김정일 정권 아니에요? 그래서 남한에 왔고 구원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고, 음식을 먹게 되었고, 예수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창립 1주년 기념 예배 때 그날 큐티 본문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사야 43장.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이 누구 때문이냐? 거기서 그나마 쪄끔이래도 먹고 살았으면 왔겠는가!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나왔는데 그 김정일 정권과 너희의 북한 형제들을 잊어서는 안 돼! 너희의 생명을 대신한 그들 때문에 너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너희는 삼성그룹에서 견학도 시켜주고, 제주도도 견학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들교회는 제주도도 못 가본 사람 많아. 그러니 너희만 힘들다고 하지 마라. 너희를 왜 이렇게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었느냐? 대신이 된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는 이 김정일 정권과 너희의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냥~ 여기 미워하고~ 이건 옳고~ 저건 틀렸고~ 이 원수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요. 남편에게 무시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김정일 정권도 아닌데... 그런데 그 애굽 노릇만 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가족은 구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유다의 구속사가 깨달아지고! 그냥 이 암초 없애 달라고 그랬는데 암초를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진리의 성령의 파도를 넘어가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기도를 하게 됐죠.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혼 타령할 때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 ‘이혼’ 그딴 얘기는 하지를 말아요. 죽기로 작정하면 무엇이 나를 침몰케 하겠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의 속량물이 될 애굽과 구스, 스바를 이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속량물로 끝나야 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평생에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미워하다가~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여러분의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속량물이 된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김정일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어요. 또 바로도 10가지 재앙을 다 겪어도 강팍했고 끝까지 쫓아오다가 또 자기의 악으로 죽었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자 해도 나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다가 믿지 못하고 죽는 우리의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끝까지 나를 펫박하다가 아무리 기도 해도... 어쩌면 우리의 애굽도 평생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를 믿게 해놓고- 동등이 역할을 해서 믿게 해놓고- 자기 악으로 죽을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를 믿게 한 식구들이 애굽의 역할만 하고- 동등이 역할만 하고-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그들이 돌아올 확률이 희귀해도! 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바로나 김정일이나 세상에서는 금수저예요. 그래서 돌아오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죠. 그래도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식구들에게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좋은 곳에 시집을 갔잖아요. 성실한 남편이에요. 가고 보니까 너무나 깊은 물과 뜨거운 불이었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시집 온 첫날부터 걸레질이 전공이 되어서 빨래를 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듯 매일 빨래와 걸레질과 청소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잣집에 시집을 왔는데 돈을 주질 않아서 저의 상대적인 빈곤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한 것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걸 몰랐어요. 저는 고난 대신에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첫 번째 죄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공부하고 피아노 친 거죠. 그러니까 이겨야 되니까 인정받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죠. 그다음에 ‘돈을 사랑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제가 돈이 좋아 결혼을 했죠. 그다음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기의 긍지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레질만 하면서도 주제를 모르고 나와 비슷한 레벨의 사람을 만나도 만나지 못해도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제가 행복

을 선택한 결과 결론은 이어지는 19가지 죄악으로 차례차례 이르게 된 고통이 저에게 각종 병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범사에 총명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큐티를 시키면서 구속사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이거는 금 주고도 못 사는 양육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 묵상 교재에 구속사적인 본문 해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교회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혼자서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이건 자증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그게 그게 내 인생인데 그리고 “예수 믿어서 나는 복 받았다~” 이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돈 없는 자체가 너무 두렵고, 남편에게 맞는 것이 두려우면요. 남편에게 그게 보여요. 그런데 그걸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장 예배에서 이런 걸 나누면... 그런 걸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나누는데 목장에 가면 워낙 큰 것을 터뜨리는 자체가 꼭 있어요. 그거 듣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근데 이제 저에게 이 복역의 때가 끝나면, 그 위로가 들려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그 순서를 맞춰서 가다 보면은 애굽을 속량물로 주신 이유는 ‘나 잘 살라고’가 아니라! 증인되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기도의 범위를 넓히라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복역의 때가 끝나니까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도 이 침몰치 않고! 사르지 않는! 이 신비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원망에서 남편이 불쌍해졌죠. 그러니까 세계 선교도 좋지만은 남편에게 증인부터 돼야 돼요! 식구들에게 증인부터 돼야 돼요! 그 사람은 부모에게 효자이고, 나에게는 열부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데 그 사람도 도덕과 윤리를 못 벗어나요. 말도 못하는 교장 선생님이고, 시아버지예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게 느껴졌어요.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메마른 심령이 불쌍했습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주제가는 “밖에 나가지 마라! 돈 쓰지 마라!” 그냥 한없이 안타까워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남편이 뭐라 그래도 상처를 좀 안받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죠. 우리가 정말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날마다 기도를 하고~ 계속 복음을 전해보고~ 이런 사람은 가자마자 다 영접을 해요. 근데 정말 영접 안하는 분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식구들도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 저도 지금까지 가면 다 영접했는데 세 분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군지 다 기억해요.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리고 저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받은 은혜 때문에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거듭나면서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나가지 못하고~” 맨날 이것만 생각하다가 출애굽 때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달아졌다고 했는데 저도 이 쓴 환경이라 나갈 수도, 전도할 수도 없었다고 했는데 증인이 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병원이 참 전도하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십자가를 길러놓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큐티 모임을 하고, 병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원장 부인이 산모들에게 전도를 하면 여러가지 손해를 보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손해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입으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남편 몰래 몰래 가서 큐티 모임은 알려야 되고~ 병실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 당시 병원에서 제일 서러운 사람은 ‘딸 낳은 산모’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병실에 들어가 주인이 됐잖아요. “난 딸 부잣집 막내딸인데 나 같은 딸만 낳아라 뭐 별거 별로 좋은 것도 없지만은” 산모들이 제 얘기에게 놀라서 영접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몰래 지금 전도해놓고 나는 혼자서 좋아하고 있는데.... 퇴원할 때 부르는 거예요. “병원비 좀 깎아주면 안 되겠냐...”고 여간 난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돈에 무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돈 안 주고, 나가지 말라는 건 다 좋은데... 전도한 사람에게는 이건 병원비를 깎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무릎을 딱 꽂고 그냥 남편에게 “201호 환자.... 병원비 좀 깎아주면 안 되겠어요?” 이러면 그냥 남편이 “보탬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입원실에 또 들어갔느냐!!” 아래가면서 욕을 바가지로~ 바가지로~ 하면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말은 ‘하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애매모호한 표정으로 구원의 표정으로 신비한 표정으로 “알았어요.” 내가 이제 상처 안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가서 또 전도합니다. 남편이 그냥 버럭 화를 내면 또 “알았어요.” 이러고 이제 무슨 말을 들어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가서 또 전도해요. 남편이 너무 바쁠 때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제가 간호사를 채용했어요. 그러면 또 우리 남편이 “예수만 믿으면 다냐!! 일을 잘해야지!!! 볼 줄을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뽑아줘야지!! 누가 뽑냐? 손해 보면 채워주시지 않겠냐?!!!” 속으로~~ 속으로~~~^^;;;; 하지만 겉으론 또 “알았어요” 이렇게 제가 증인이 되면서 이런 신비함-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사르지 않는 신비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쌓아두었기 때문에! 남편의 마지막 때에 병원이 믿는 사람으로 채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 부탁을 했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전도해보고, 조롱받으면 혈기가 나가서 “관둬라~관둬~ 내가 다시 너한테 전도하나 봐라!!” 그러지 말아요.^^ 그래도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화내지 않고 신비한 표정으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전도하는데 남편한테는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제가 늘 남편만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점점 사람들하고 만남이 적어지면서 저녁마다 저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술을 따라놓고 혼자 마시고 저는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 먹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근데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니까 싫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또 내가 술

을 좋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좋지도 싫지도 않은 표정이 신비한 표정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물과 불을 잘 통과하면 이 신비한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비한 표정이 나오면 리더십이 주어지게 돼요. 남편이 그런 저에게 호기심을 갖고 연구를 해요. 제가 화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병원에서 24시간 지금 붙어있잖아요. 얼마나 사는 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애들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뭐 이사 갈까?” 이래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뛸 듯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뭘 알겠어요? 아! 뭐 이러저러 하면 팬찮을 것 같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요. 제가 아는 게 있어야지요~~” 이러면은요, ‘이러저러하면 좋겠지만’하고 꼭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있죠. 내가 “이러저러 하면 좋겠지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요. 내가 뭘 알겠어요.” 이게 신비한 언어예요. 여러분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쫓아다니고, 문자 확인하고 그러지 말고 신비한 표정으로 신비한 대화를 하기 바랍니다.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증인 되기로 결단하고 살면서 필요한 응답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병원 2층 살림집에서 구역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거기에 와서-우리 살림집 부엌에 와가지고 식당에서- 다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몇 식구가 구역예배를 드리니까 간호사들이 점심에 밥을 먹어야 하는데 예배가 길어지니까 인터폰을 계속하면서 “안 가? 안 내보내?” 계속 이려고 우리 남편이. “당장 내가 쳐들어간다!!” 그러니까 올려대니까 예배 보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또 그나마 우리 형편이 제일 나아서 다른 집에는 갈 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돈 안 줘도 좋고, 안 나가도 좋으니까 제발 예배드릴 처소 하나만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증인이 돼야 하니까요. 이게 가능하기나 한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 한편 얼마나 돈에 무서운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 2층의 반을 살림집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층이 옥상인데 3층에 한 24평짜리 살림집을 거기다 짓고 2층을 병실로 바꿔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24평 옥상에다가 살림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짓고 나서 3층에서 하루를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운동한다고 .. 늘 2층에서 환자 오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러면서 운동한다고 그랬는데 3층에서 하루를 하더니 힘들다고 도로 2층으로 내려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실은 안 늘고 살림집만 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3층이 그대로 제 뜻으로 돌아왔어요. 3층에 아무도 안 가. 돈 하나도 안 주던 남편이 예배 처소를 저절로 지어준 줄 믿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상상이 안 되던 기도 응답이에요.

자, 3층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전화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병원 전화로 상담을 해대니까 산모들이 전화가 불통이라고 불평을 하니까 또 얼마나 저를 야단치겠어요. 그래서 “전화 하나 놔주면 안 되냐고”하니, “니가 사업을 하냐! 뭘 하냐! 전화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그거 내 돈으로 좀 놓으면 안되냐고” “니 돈

이 어딨냐!! 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죠. 주님, 증인 돼야 되는데 예배 봐야 되고 이러는데 전화가 한 대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전화국에서 하루는요, 전화를 놨다가 이사 가면 그게 백색전화가 된다고 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굉장히 전화가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청색전화를 하다가 이사가면 백색전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또 이재(理財)에 밝잖아요. 당장 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달려오는 날 우리 남편 수술이 길어져가지고 내가 그걸 어디다 놓을 걸 정한 거예요. 그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전선이 2층은 밖으로 보여서 3층에 그냥 달았다고. 병원 외관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글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상담 전화 생겼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일이 저한테는 1원도 안주는데 이타적인 주님의 일은 다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편 가고 나서 13년만 13개 큐티 모임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 병원에서부터 그렇게 마음 졸여가면서 부들부들 떨며 큐티 모임을 한 것이 8년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원장 사모가 돼서 어떻게 병원을 그렇게 오픈하고 그랬는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깨달아지고 나서부터 저는 정말 증인이 되는데 일관되는 그 소원을 주셨어요. 복음 전하고, 가정 살리고! 물과 불 가운데 함께하시니까 주님의 일은 다 주님이 하셨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타적인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전도하고 양육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 다 기억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5~6절이에요.

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자,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남편 순종을 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강남 한복판, 판교 한복판에서 교회를 하게 하시는데 지금 동서남북에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모여 들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대단한 주의 일을 하겠다고요? ★지금 자기 자리에서 증인이 되지 못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리에서부터! 식구들에게부터! 증인이 되는 일 하시기를 바래요. 7절에,

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물과 불에 들어가면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맨날 전공이 상처 묵상하는 게 여러분들 전공이잖아요. 꺼내놨다가 다시 보고~ 꺼내놨다가 다시 보고~ ^^^;; 그런데 우리 오늘 ★우리는 상처를 위해서 창조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이제 나의 물과 불의 흔

적에서 주님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남편의 품질이 좋고 나쁘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계속 시댁 얘기, 남편 얘기, 자녀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물과 불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셔요. 그걸 증거하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직 그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똑같아요. 똑같은 물과 불이에요. 좋은 물, 나쁜 물이 없어요. 뜨거운 불, 덜 뜨거운 불이 없어요. 그냥 나의 물과 불에서 증인이 돼서 주님을 증거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적용 질문이에요.

Q. 나를 위해 속량물이 된 자를 위해 신비한 체험으로, 말로, 표정으로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맷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의 구속사가 이해돼야 해요. 물과 불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아시는 고난에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증인 되기 위해서 나에게 속량물로 주신 애굽이 있어요. 그 애굽을 위해서 이 신비한 표정의 체험을 가지고! 표정과 언어와 이 모든 것으로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기도제목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유다의 구속사를 깨닫게 해달라고. 유다의 구속사인 우리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아시는 고난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물과 불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에게 주신이 속량물인 애굽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신비한 체험과 표정과 말과 언어로 이 모든 식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주실지.. 말도 하기 싫고, 기대도 이제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나를 간하게 하신 그 물과 불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일평생 나를 간하게 했던 그 모든 환경들은 저를 용서하심이라고 깨달아줬습니다. 밑동 잘린 나무인 이 죽음이 다 똑같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짧은 시간에 날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사하심을 경험케 하는 이 용서하심을 어디서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참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가 밑동 잘린 나무입니다. 예수 믿고, 나의 물과 불에서 참으로 주님의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신비한 주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나를 대신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몽둥이 역할만하고 끝날 식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렇게 내가 놀라운 생명을 얻었는데 나의 대신이 되는 모든 식구들. 또 그렇지 아니한 수많은 식구들- 내 아버지와 어머니, 내 배우자,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밀알이 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돌려주시옵소서. 죽도

록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같이 천국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같이 천국 가자고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증인 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고!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증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좀 다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 제대로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런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이제 정말 어떤 사건에서도 해석해 주실 그 예수님을 제가 믿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주시옵소서!” 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좀 다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많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이 증인! 유다의 구속사를 듣고 깨닫고 지금 한결같이 사십년 넘게 왔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누가 그렇게 앉아서 날마다!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집을 열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좀 다 일어나주십시오. “이제 내가 그런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해요. 이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해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고! 거룩을 목적으로 놓을 때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방향이 예수께로 정해지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는 분들 그 자리에 좀 다 일어나 주십시오.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없는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은 악세사리가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구원받아야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 주님을 믿는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오늘 다들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면 이렇게 일생을 걸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좋은 예수님 같이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좀 다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저런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궁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영접하는 자 모두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갇힌 것이 용서하심입니다”

(요약) 2023.4.9.(부활주일) 이사야 43:1-7 증인이 되라

성경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죽어지고 썩어지면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이렇게 숨이 쉬어지지 않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증인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1. 하나님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1-2절)

Q. 나를 창조하시고 지어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까?

Q. 이 구속사의 유다를 얼마나 이해하시는지요?

2. 물과 불에 순종해야 합니다. (2절)

Q.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물과 불을 지나고 있습니까? (자식 불, 돈의 불, 건강의 불, 배우자의 불 등등)

Q.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합니까? 내 몸에 딱 맞는 물과 불이라고 지금 용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3. 나에게 속량물로 주신 애굽이 있습니다. (3-7절)

Q. 나를 위해 속량물이 된 자를 위해 신비한 체험으로, 말로, 표정으로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되는 것이죠.

“갇힌 것이 용서하심입니다”